

17세기 제주도 여정(女丁)의 성격

-군역(軍役) 부담에 대한 고찰-

한금순*

- I. 머리말
- II. 기존 제주도 여정(女丁)에 대한 이견
- III. 제주도 여성의 군사 역할 수행 여부
- IV. 제주도 여정(女丁)의 성격 재고(再考)
- V. 맺음말

국문요약

제주도에서는 여자들이 성(城)을 방어하는데 이를 여정(女丁)이라는 제주도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 김상헌의 『남사록』 기록을 근거로 하여 여정을 제주도 여성 군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여정은 김상헌의 제주 방문 시기인 1601년경에는 성을 방위하는데 동원되었던 제주 여성들의 역할을 일컫는 제주어였다고 본고는 보았다. 본고는 김상헌이 방문하였던 1601년 제주도의 시대적 상황과 조선시대 호적에서 여정 용어의 쓰임을 살펴, 김상헌은 7년의 왜란 직후인 1601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정군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을 제주도어로 여정이라 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라 보았다.

여정이라는 용어는 1639년 다른 지역 호적에서 쓰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살피며, 다른 지역 호적에서도 여정이 남정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이 등재되고 있

* 제주 남녕고등학교 교사

는 현상도 파악하였다. 무엇보다도 김상헌의 같은 기록 속에서 전체 인구대비 남정/여정의 비율을 주목하였더니 남/녀 인구비율과 남정/여정의 비율이 거의 같은 수치로 밝혀지기도 하였고 김상헌도 남/녀와 남정/여정을 별도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음도 살폈다. 그러므로 여정을 조선시대 내내 제주도 여성의 군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기엔 곤란함을 밝혔다.

주제어 : 여정, 김상헌, 조선시대 호적, 군역, 요역

I. 머리말

역사 속 제주도 여성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히 군역을 부담했던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는 여자들이 성(城)을 방어하는데 이를 여정(女丁)이라는 제주도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 김상헌의 『남사록』 기록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정을 제주도 여성 군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제주도 여성들은 성정군의 군역을 맡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남성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논리의 비약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출판물로 인쇄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널리 퍼지면서 여정이 제주도 여성의 군역이었던 것으로 확정하는 인식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는 과연 김상헌이 기록한 여정이 ‘제주도만’의 특별한 ‘군역’으로서 ‘여군’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을까 하는 데에 의문을 품었다. 우선 여정은 조선시대 호적 용어인데 제주도만의 여군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남정(男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여정(女丁)은 해당 호적에 등재된 여성 모두를 뜻하는 용어로 호적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부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주도에만 특별히 여자에게 군역의 부담을 지운 이유가 있었을까에 의문을 가졌다.

이에 본고는 김상헌이 표현한 여정이 어떤 성격의 군인이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아울러 조선시대 호적용어인 여정의 특징을 살펴 여정이 제주도 여성에게 부여된 군역 용어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의 조선시대 호적대장에서는 여정이라는 용어를 어떻

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졌다. 『전라도 해남현 호적대장』, 『단성 호적』, 『대구부 호적』과 『제주도 하원리 호적중초』를 자료로 이용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여정이 정말 제주도만의 여군이었다면 조선시대 부역 운영에 있어 제주도만의 특별함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여정을 제주도만의 여군으로 인식하는 것이 논리의 비약임을 밝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 기존 제주도 여정(女丁)에 대한 이견

1. 여정은 제주도 여성의 군역이라는 인식

여정은 조선시대 제주 여성의 군역이라고 인식하는 입장의 근거 기록은 김상헌의 『남사록』(1601년)¹⁾이다.

내가 살펴보니 本州 성안의 男丁은 500이고, 女丁은 800이다. 女丁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말이다. 대개 男丁이 매우 귀하여 만약 유사시 성을 방어하게 될 때면 민가의 건강한 婦女子를 골라 성가퀴에 내세워 女丁이라 하니 삼읍이 모두 그렇게 한다.²⁾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별히 ‘조선시대 제주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이 동원되는, 성을 방어하는 군역의 대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여정은 여성 군인을 칭하는 용어로 보는 연구가 있다. 김일우는 그의 논문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

1) 김상헌은 16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김운질 소독유 의 모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주안무어사로 파견되어 제주도에 관해 파악한 사항을 『남사록』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2) 김상헌 저, 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9, 100쪽. 원문은 256쪽 “余按本州城中 男丁五百 女丁八百 女丁者 濟州之語也 盖男丁甚貴 若遇事變守城 則選民家健婦 發立塚口 稱爲女丁 三邑同然”.

여성」에서 김상헌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여정을 여군으로 보았고 제주도에서만 찾을 수 있는 현상이라 보았다. 여정은 성을 지키는 수성군 중의 여군을 일컫는다고 보고 있으며 남정보다 더 많은 숫자에 주목하였다.

‘女丁’은 성을 지키는데 나선 제주여성을 뜻한다. 김상헌이 왔었던 17세기 초반 무렵만 하더라도, 제주성의 경우, 女丁이 8백 명으로 청·장년층의 남성을 일컫는 ‘男丁’ 오백 명 보다 오히려 3백 명이 더 많았다. 女丁의 존재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女丁은 근래까지도 ‘예청’에 해당하는 제주말의 한자차용표기이고, ‘예청’은 여성이나 부인, 혹은 부녀자를 일컫었다. 한편 ‘화살받이 터[堞口]’라 함은 성 가운데 적의 공격목표가 되는 과녁으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곳이다. 守城軍이 화살받이 터만 사수하면 적은 쳐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겠다. 이에 제주女丁은 여성으로서 관방시설을 지키는데 나선 수성군 가운데 女軍을 일컫었고, 이들은 관방시설 중 가장 핵심이 되었던 곳에 보초를 서 외적, 곧 왜구의 침탈을 방비하고 있었던 것이다.³⁾

김일우는 여정은 ‘제주말 예청의 한자차용표기이며 여성 혹은 부인, 부녀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보고 있으며, ‘적의 공격목표가 되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곳’인 화살받이 터를 방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여정은 “관방시설을 지키는데 나선 수성군 가운데 여군”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김일우는 1901년 제주의 신축민란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역할이 조선시대 여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주목하였다.

신축민란은 천주교의 교세확장에서 생겨난 폐단과 封稅官의 조세수탈에 대해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등이 주도했다. 이들 민란군이 제주성 점령에 나섰을 때, 제주 성안 여성들은 모이라는 외침에 흰 두건을 쓰고, 막대기를 들고 뛰어나왔거니와, 그 무리가 천여 명에 달했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과 맞먹는 무리의 남성들을 이끌어 성 위로 올라가 무장해체를 시키는 한편, 성을 지키던 敎人들을 내쫓아 성 위를 완전 장악했다.⁴⁾

3) 김일우,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163~164쪽.

4) 김일우, 앞의 2008 논문, 165쪽.

신축민란에서의 천여 명의 여성들이 남성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제주 성을 장악하는 행동을 보였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행동력은 곧 여정으로서 관방시설에 동원되고 수성군으로 나섰던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으로 보았다.

신축민란 때, 제주 성안의 여성이 보여준 모습은 외부세력의 침략과 같은 번고가 생겼을 때의 행동요령과 아울러, 守城과 관련된 역할 수행을 터득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女丁으로 일컬어지면서 관방시설에 동원되거나 守城軍으로 나섰던 전통과 경험을 통해 습득되었다고 하겠다.⁵⁾

이러한 여정의 모습은 ‘남성과 동반적 관계를 이루는 적극적인 제주의 여성상’이라고 보았다.

‘예칭’은 조선시대 제주사회가 당면한 사회현안을 해결하는데 남성과 동반적 관계를 이루며 적극적으로 나섰던 제주여성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⁶⁾

김일우는 김상헌의 기록을 근거로 ‘여정은 제주도 여성에게만 주어졌던 군인의 역할로 수성군으로 활동했으며 남정보다 숫자적으로도 많았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경험은 1901년의 신축민란에서도 성을 장악하는 제주 여성들의 적극적인 면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한림화는 「제주의 관방시설과 제주여성」이라는 글에서 여정은 남성과 동등한 제주 여성의 군역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김상헌의 기록을 근거로 ‘여정이 남성과 마찬가지로의 군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관방시설에서 군역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1600년대 초에는 제주여성들이 女丁으로서 대대적으로 읍성과 진성에 투입된다. ……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수효는 오히려 男丁보다 월등히 우세하였다.⁷⁾

5) 김일우, 앞의 2008 논문, 165쪽.

6) 김일우, 앞의 2008 논문, 166쪽.

7) 한림화, 「제주의 관방시설과 제주여성」,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 339쪽.

한림화는 제주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관방시설에서 군역을 치렀으며 여정으로서 성에 투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여정은 군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정의 수효는 오히려 남정보다 월등히 우세함’에 주목하였다.

덧붙여 제주 여성은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활쏘기 연습이나 경연에서 살받이터에 배치되기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찍이 제주여성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다시 말해 공적인 사회 조직원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女丁은 성을 지킬 뿐 아니라 활쏘기 연습이나 경연이 있으면 살받이터에 배치되어 깃발을 흔들어 수신호를 하고 쏜 살을 주워 수습하는 역할도 맡았다.⁸⁾

나아가 한림화는 조선시대 제주 여성은 국방의 임무를 남성과 똑같이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김상헌의 女丁에 대한 기록은 제주여성이 오래 전부터 매우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였음을 더듬어 볼 귀중한 사료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대로 남성의 고유 의무이며 영역으로만 확인되었던 국방의 임무를 조선시대에는 제주여성이 똑같이 수행했음을 증거 하는 자료이다.⁹⁾

한림화의 글에서는 짚은 논리의 비약이 보인다. 세금과 부역은 강제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군역이라는 제주 여정의 활동이 ‘제주여성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모습이며 ‘국방의 임무를 남성과 똑같이 수행’했음의 증거라는 인식은 논리의 비약이다. 여정이 만일 조선시대 제주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져야 할 군역의 증거라면 조선시대 부역에 대한 연구는 이 때문에 다시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에도 여정을 “조선시대 군역을 져야 했던 제주 지역의 여성들”¹⁰⁾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여

8) 한림화, 앞의 2009 글, 339~340쪽.

9) 한림화, 앞의 2009 글, 340~341쪽.

10)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정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용어이며 제주 여성에게만 군역이 주어졌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해의 여지를 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군역은 의무였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 조선시대 제주 여성들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게 군역의 의무까지 가지고 있었고 이를 여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제주 여성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상 여정을 제주 여성만의 특별한 군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여정은 제주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 여자들의 군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제주 여정의 숫자는 남정보다 월등히 많았다. (3)제주도의 여정은 수성군 가운데 여군(女軍)으로 남성과 마찬가지로의 군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이 맞는 지를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

2. 여정은 요역(徭役)이라는 인식

조선시대 군제를 연구한 김상옥은 「조선후기 제주지방 군사제도」라는 논문을 통해, 김상헌 기록의 여정을 ‘요역 대상자’로 보고 있다. 요역이라는 것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차출되었던 노동력이다. 김상옥에 의하면, 김상헌 기록의 삼읍의 여정은 “군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동원된 요역 대상자”¹¹⁾를 일컫는다.

김상옥도 김상헌의 기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성정군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군역이 아니라 요역 대상자라고 하고 있다.

각 방호소에는 성이 축조되어 있다. …… 성정군은 바로 성이 축조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각 방호소의 城將은 조방장이 겸임하였으며, 성정군에 의해 적의 침입시 성을 수비하였다. 그러나 성정군은 군역 대상자로 조직되었다고 볼 수 없다.¹²⁾

11)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 군사제도」,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60쪽.

12) 김상옥, 앞의 1997 논문, 69쪽.

김상옥은 김상헌 기록의 여정이 성을 지킨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또한 성정군의 구성을 살펴 성정군의 구성은 군역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탐라방영총람』 <대변청, 교련청>에는 賑恤除番과 均役除番, 假吏의 일부가 성정군으로 충원되고 있다. …… 留直軍도 군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 편 의상 동원된 요역 대상자로 보고 있다.¹³⁾

이와 같이 김상옥은 군역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성정군에 포함되고 있음을 들어 성정군에 투입되었던 여정도 군역 대상자가 아니라 요역 대상자라 보고 있다. 즉 김상헌 기록의 여정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차출되었던 요역으로 유사시에 일시적으로 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요역 대상자라는 것이다.

III. 제주도 여성의 군사 역할 수행 여부

1. 김상헌 방문 시기의 제주도의 시대적 상황

김상헌의 『남사록』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김상헌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김상헌은 1601년 9월 22일 제주도에 도착하여 1602년 1월 24일 제주를 떠났다. 김상헌이 제주도를 방문한 1601년은 조선이 임진왜란을 거쳐 정유재란까지 겪은 바로 직후이다. 정유재란이 1598년에 끝나 조선 전체가 7년 여의 전쟁으로 많은 피해가 있던 시기이다.

1603년 『선조실록』에서 선조가 제주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제주읍은 ……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하여 적의 소굴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병력으로는 다시 수복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제주를 방어하지 못

13) 김상옥, 앞의 1997 논문, 70쪽.

하게 될 때는 실로 우리나라가 망하는 때인 것이다.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짐짓 치지도외하고 있으니, 내가 매우 걱정스럽다.¹⁴⁾

제주도는 적에게 뺏기게 되면 다시 수복하기 어려운 중요한 곳으로 제주도를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의 인식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제주도 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제주도에는 육지부로부터 원병이 파병되고 있었다. 제주도를 위한 원병은 연례적으로 파견되고 있었음을 『명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제주도가 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지킬 수 있을지를 보장하기 어려우니, 年例로 보내는 援兵을 각별히 활 잘 쏘는 사람을 골라서 미리 城柵을 정비하게 하기 위하여 3월 보름 이전에 보내소서.¹⁵⁾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인 1600년의 제주 원병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濟州의 援兵은 매년 3월 초에 서울의 上番騎兵 가운데에서 5백 명을 뽑아내어 入送시키는 것이 원래의 격례였습니다. 그런데 임진년 이후로 군사의 수효가 적어 2백 명을 감하고 3백 명만 입송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유년에 입송시킨 뒤 교체가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오랫동안 수자리 살면서 자기들만 고통을 당한다며 원망하는 데 대한 대책이 서지 않으니 매우 가련합니다. 이번에 연해의 군사는 …… 군사의 숫자가 너무 작아서 모두 제대로 모양을 이룰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제주의 원병을 격례에 따라 입송시키는 것은 사세상 매우 곤란합니다.¹⁶⁾

매년 3월 초에 일정한 방식의 관례로 5백 명 정도의 서울의 상번기병을 제주를 위한 원병으로 파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나라의 군사의 숫자가 너무 적어져서 1600년에는 제주 원병을 관례에

14) 『선조실록』 158권, 36년(1603 계묘) 1월 14일(신미).

15) 『명종실록』 28권, 17년(1562 임술) 11월 11일(신묘).

16) 『선조실록』 121권, 33년(1600 경자) 1월 9일(갑인).

따라 보내주기가 곤란하며, 이미 제주도에 들어간 원병은 3년 동안 교체 해주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주에 원병을 관례대로 보내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1601년에도 원병에 대한 기사가 있다. 평상시에 3백 명을 제주에 들여보냈는데 난리 이후에는 제주에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하여 제주에서 수자리 서는 것을 죽을 곳에 가는 것으로 여긴다고 보고하고 있다.

本州는 한 조각 외로운 섬으로 멀리 해외에 있으니, 만일 적에게 점거되면 우리의 肘腋의 걱정이 되어 만세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 참으로 상의 분부와 같습니다. 武士를 더 보태어 방어함에 있어 평시에는 항상 3백 명을 들여보냈으나 난리 후에는 防戍에 응하는 군사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여 그 고통이 다른 곳보다 배나 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섬에서 수자리 사는 것을 죽을 곳에 가는 것처럼 여깁니다. 바다를 건너는 양식도 本道에서 또 법대로 준비해 주지 않고 대략 3백 명분을 반감하여 1백 50명분으로 합니다. 금년 봄을 기다려 入送하라는 일로 이미 계하하여 行移하였는데, 금년 봄에 이미 입송시켰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다를 건너지 않았으면 兵使로 하여금 날짜를 정해 독촉하여 입송하게 해야 하며 또 더 뽑아 보태야 합니다.¹⁷⁾

봄에 이미 원병을 보내라고 임금에게 재가를 받았는데 원병을 보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독촉하여 원병을 보내고 숫자도 더 뽑아 보태야 한다고 하고 있다. 1601년 5월 중순경의 상황이다. 김상헌은 1601년 9월 중순에 제주도에 들어왔으니 이러한 원병으로 인한 제주도 군사적 어려움이 있던 그 시기이다.

김상헌이 방문했을 때의 제주도의 인구 상황은 『선조실록』을 통해 파악된다. 다음은 제주목사 성윤문의 보고이다.

本島는 경인년 전염병이 있는 뒤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인민의 태반이 사망하여 闕戶가 3분의 2나 됩니다. 그러나 달리 充定할 만한 장정이 없으니, 關防의 重地에 戍禦할 방책이 없습니다.¹⁸⁾

17) 『선조실록』 137권, 34년(1601 신축) 5월 12일(기유).

18) 『선조실록』 132권, 33년(1600 경자) 12월 3일(임신).

1600년 12월의 제주도 상황은 인민의 태반이 사망하여 궐호가 3분의 2나 되어 장정이 없어 관방을 방어할 방책이 없다고 제주목사가 보고하고 있다. 여성들이 관방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제주목사 성윤문이 보고한 제주도의 상황이나 김상헌이 본 제주도의 상황이 비슷함을 말해주고 있다.

1603년까지도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제주가 형세는 비할 데 없이 좋으나 전란을 겪은 뒤로는 주민들이 거의 다 사망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극심하게 번거로운 役使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형세 때문에 오늘날까지 보전되기는 하였지만, 인물이 조잔한 것이 근래에 더욱 심합니다. 따라서 군졸을 調發하여도 수백 명이 못 되고 생산되는 말도 전보다 적다고 합니다. 州城은 넓고 멀어 固守하기가 어려우며, 山城이 험난하기는 하지만 절벽으로 둘러 싸여 있고 물이 없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¹⁹⁾

1603년까지도 전란 이후 주민들이 거의 다 사망하고 인물이 늙고 병든 것이 근래에 더욱 심하며, 군졸은 수백 명이 못되는데 주의 성은 넓고 멀어 지키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김상헌이 제주를 다녀간 1년 후의 상황이다.²⁰⁾

이렇게 김상헌이 제주도를 방문하기 전과 후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니 김상헌의 기록을 다시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1601년 김상헌이 본 제주도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영향으로 조정에서 제주도에 관례적으로 파견해주던 원병이 줄어들어 시기가었고 제주도의 인명 피해도 커 군졸이 수백 명이 못되는 실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유사시에 성을 지키는 데에(若遇事變守城)’ 부녀자가 동원되었고 이를 제주도 말로 여정이라 일컫고 있었던 상황을 김상헌이 기록하였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여정은 군역이라고 인식한 연구들은 김상헌의 기록을 근거로 들면서도 당대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1601년 여성들도 군

19) 『선조실록』 158권, 36년(1603 계묘) 1월 14일(신미).

20) 김상헌은 1601년 9월 22일에 제주도에 도착하고 1602년 1월 25일에 돌아갔다.

사의 역할을 해야 했던 유사시임을 기록한 것을 간과하고 조선시대 전체 제주도 여성만의 군사 역할로 이해하는 오류로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제주도 여성의 군사 역할 수행 여부

조선시대 제주도 여성들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인식은 김상헌의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의 군사 역할 기록이 『선조실록』에도 있다.

제주 구황 어사 조성립이 국둔마의 점열과 군관의 폐단에 관해 보고하다

本島の 세 고을은 방비가 매우 긴요한데 防戍하는 군졸이 이처럼 單弱하여, 旌義의 경우에는 대부분 女人들로 정해 주고 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마땅히 변통시켜야 할 것인데,各司의 奴婢를 私賤과 바꾸어 모두 軍伍에 충당시키는 일은 새로운 규정이 되기 때문에 경솔히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²¹⁾

1604년 제주구황어사 조성립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군사들은 역량이 없어 정의 지역의 경우는 여인들로 정하여 나눠주고 있어 한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자를 군사로 내세우는 일이 일상적인 일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을 변통시켜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군사를 충당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심사숙고 할 일이라고 하고 있다.

1604년까지도 제주도에는 군졸이 모자라 여인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7년여의 전쟁의 여파로 군사가 전국적으로 절대적으로 적어진 유사시라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군사의 수가 모자라다고 규칙 없이 군역을 시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포착된다.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의 제정은 경솔히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던 모습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헌 기록의 제주 여정은 왜란의 영향으로 원병 등도 지원되지 않

21) 『선조실록』 174권, 37년(1604 갑진) 5월 25일(을해).

는 등으로 군사가 적어진 시대적 상황 때문에 ‘유사시에는 성을 방어(若遇事變守城)’하는 데에 동원되었던 제주 여성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자료라 생각된다.

김상헌의 이 기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남사일록』²²⁾이 있다. 숙종 5년(1679년) 제주안핵 겸 순무어사로 파견되어 온 이증의 기록이다. 전 목사와 정의현감의 비행을 조사하는 임무로 파견되었고, 비변사에서 부과한 임무 중에는 군정과 군기 등을 조사하고 방수를 살피고 보고하는 임무까지 부여받고 제주에 와 남긴 기록이다.

다음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원문을 찾아 다시 번역한 부분이다. 참고문헌으로 이용한 해석본에 탈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다시 번역하였다.²³⁾

삼읍의 民戶의 반은 전과 같지 않다고 한다. 오직 다만 본목의 남정은 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정이 성첩을 지키는 규정은 없다. 海路를 왕래하는데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표류하여 죽는 자가 드물게 되어 그리된 것이 아니겠는가.²⁴⁾

1679년에는 ‘지금은 여정이 성첩을 지키는 규정이 없다.’고 이증은 기록하고 있다. 남정이 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전에는 여자들도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김상헌의 기록 ‘약우사변수성(若遇事變守城)’은 반드시 ‘유사시에 즉 사변을 만났을 때’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여정이 지속적으로 성첩을 지켰던 것은 아니고 유사시에 동원된 요역이었다는 증거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김상헌의 기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김상헌이 표현한 여정은 1601년이라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22) 이증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23) 이증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1쪽. “삼읍의 民戶의 반은 앞과 같지 않다고 한다. 오직 다만 본목의 남정은 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표류하여 죽는 자가 드물게 되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되어 있다. 문장이 이상하여 해석문과 원문을 대조해 봤더니 해석문에서 탈락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24) 임병건 해석. 三邑民戶半不如前云而 唯獨本牧男丁多於前故 今無女丁守堞之規 無乃海路漸熟於往來 罕有漂沒者而然耶(이증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영인본 62쪽).

이후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배경에 의해 유사시에 성을 지키는데 동원되었던 요역 대상자로서의 제주 여성을 일컬었음으로 확인 할 수 있다.

IV. 제주도 여정(女丁)의 성격 재고(再考)

여정은 조선시대 호적 용어로 쓰인다. 호적 용어로 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여정은 제주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 여자들의 군역을 지칭한다고 하는 인식과 여정의 숫자가 남정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하는 인식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1)여정이라는 개념이 김상헌의 표현처럼 제주도만의 용어였는지도 파악해 낼 것이며, (2)남정과 여정의 숫자를 비교하여 제주도에만 여정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었는지 여부를 찾도록 하겠다. 아울러 호적에 등재된 여성들의 직역을 살펴 (3)여정이라는 용어가 군역을 칭하는 용어였는지도 살펴 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 호적 용어 여정(女丁)

여정이라는 말은 남정에 대비되는 말로 조선시대 호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호적은 ‘집권을 위한 인적·물적 기초가 되는 인정(人丁)의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정의한다.²⁵⁾ 호적 작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가가 노동력이나 병력 또는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호적은 군역뿐만 아니라 각종 역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였다.

『숙종실록』의 남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북한산에 축성하는 일을 의논하다.

“各廳의 軍校가 죽히 4, 5만 명은 되고, 都城 안의 男丁이 戶籍을 살펴보면 11만 명이 되지만, 壯丁만을 헤아리면 7, 8만 명 정도이니²⁶⁾

25) 다음백과(<http://100.daum.net>).

26) 『숙종실록』 49권, 36년(1710 경인) 12월 28일(무자).

호적의 남정 11만 명 중에 장정(壯丁)은 7, 8만이라고 하여 남정 중에 장정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남정은 호적에 등재된 모든 남자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 중 16세에서 60세까지의 역의 부담을 지는 사람을 장정이라 한다.

호적의 구성을 『하원리 호적중초』²⁷⁾에서 살펴보면 호적 말미에는 해당 식년의 전체 통계를 기록해 놓는다. 원호(原戶) 작통(作統) 도인구(都人口) 남정(男丁) 여정(女丁)으로 구분하여 그 숫자를 기록한다. 이러한 양식은 대부분의 호적작성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남정과 여정을 다시 각각 장정(壯) 노인(老) 어린이(弱)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남정은 장노약(壯老弱)을 모두 포함하는 호적 등재 대상 남자 모두를 의미하는 용어라 볼 수 있고 여정은 여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적 기재 양식은 제주도만의 특징은 아니다. 육지부 호적에서 여정의 사용을 살펴보면, 여정 용어의 호적에서의 쓰임은 1639년 『전라도 해남현 호적대장』에서 여정을 여자 인구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기록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²⁸⁾

女丁 一千六口內
 氏 老 四十六口 壯 五十三口
 良女 老 一百三口 壯 二百五十六口 弱 一百六十二口……²⁹⁾

『대구부 호적』에서도 남정과 여정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³⁰⁾ 『대구부 호적』은 연도별로 남아있어 여정 용어의 사용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대구부 호적』에서 여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정은 김상헌의 기록대로 제주만의 특별한 용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7)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1, 2(영인본), 1992.

28) 임학성, 「현재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과 신발견 1666년도 ‘제주목병오식호적대장’ 단편」, 『고문서연구』 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90쪽.

29) 『전라도 해남현 호적대장』(인조 17, 163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호적 DB(<http://daedong.skku.ac.kr>)를 이용하였다.

표 1에서 마을명의 빈칸은 호적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이다. 마을별로 모든 연도에 호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가장 오래된 연대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드러나는 연대까지 정리한 것이다.

〈표 1〉 『대구부 호적』의 여성 기재 현황

호적명칭	연도	마을 명	기재 현황	마을 명	기재 현황	마을 명	기재 현황	마을 명	기재 현황	마을 명	기재 현황	마을 명	기재 현황
대구부I	1681	서상	女							수서	女	수남	女
대구부II	1681	서중	女	달서	女					하동	女		
대구부I	1684	서상	女	동상	女	동중	女	동하	女				
대구부II	1684	서중	女							하동	女		
대구부II	1687					조암	女	월배	女				
대구부I	1690			동상	女	동중	女	동하	女				
대구부II	1690			달서	女	조암	女	월배	女	하동	女		
대구부I	1696			동상	女丁	동중	女丁	동하	女丁				
대구부I	1705					동중	女丁						
대구부II	1705							월배	女丁	하동	女丁		
대구부I	1708	서상	女丁							수서	女丁		
대구부II	1708	서중	女丁	달서	女丁			월배	女丁				
대구부I	1714	서상	女丁										

출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호적 DB

〈표 1〉에서 드러나듯이 『대구부 호적』에는 1690년까지는 남/녀(男/女)로 인구 통계를 기록하고 있다. 1696년부터 남정/여정(男丁/女丁)으로 용어를 바꾸어 기록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표 1에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1714년 이후 연도에서는 계속 남정/여정으로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남/녀로 기록된 1684년 서상리 호적 말미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已上肆百拾肆戶作統捌拾參統人口貳千拾玖口以男壹千拾壹口內壯陸百玖拾陸口老陸拾壹口弱貳百伍拾肆口女壹千捌口內壯陸百陸拾參口老捌拾柒口弱貳百伍拾捌口風憲通德郎徐穡約正効學蔡斗齡³¹⁾

3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호적 DB(<http://daedong.skku.ac.kr>)를 이용하였다.

서상리의 총인구는 2,019명인데 남 1,011명 여 1,008명이다. 남자 1,011명 안에는 장(壯)이 696명 노(老) 61명 약(弱) 254명이고, 여자는 1,008명 안에 장(壯)이 663명 노(老) 87명 약(弱) 258명이다. 각각의 수를 합산해 보면 호적상의 총인구 2,019명과 일치한다.

남정/여정으로 기록된 1696년 동상리 호적 말미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已上元戶肆百玖拾玖戶以作統玖拾玖統參戶元人口貳千伍百陸拾陸口以男丁壹千貳百肆拾捌口內壯捌百參拾貳口老玖拾口弱參百貳拾陸口女丁壹千參百拾捌口內壯捌百捌拾貳口老壹百拾伍口弱參百貳拾壹口約正白重儉風憲裊慶祐³²⁾

동상리의 원인구는 2,566명으로 남정이 1,248명 여정이 1,318명이다. 남정 1,248명은 장(壯) 832명 노(老) 90명 약(弱) 326명이다. 여정 1,318명은 장이 882명 노 115명 약 321명이다. 합산해 보면 호적상 원인구의 수 2,566명과 일치한다.

『대구부 호적』 호적 기록에서는 남/녀였던 기록 용어가 1696년 이래 남정/여정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정/여정은 특별한 직역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며 남/녀와 남정/여정 안에는 역의 부담에서 제외되는 16세미만 60세 이상인 어린이와 노인의 수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남정과 여정이라는 용어는 호적에 등재되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칭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단성 호적』³³⁾ 자료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었다. 1678년에는 남/녀로 기록하다가 1717년에는 남정/여정으로 기록하고 있고 『대구부 호적』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는 남정/여정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다.

김상헌은 여정을 제주만의 용어로 보고 있어서, 다른 지역 호적에서 여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더니 남/녀 기록에서 남정/여정으로 기록 용어를 바꾸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라도 해남현 호적대장』에서 1639년에 『대구부 호적』에서 1696년경부터 여정을 전체 여자 인구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김상헌이 기록한 1601년의 제주도 여정은 제주만의 용어였을 가능

3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호적 DB(<http://daedong.skku.ac.kr/>)를 이용하였다.

33) 상동

성이 있어 보인다. 김상헌은 여정이라는 제주어를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김상헌은 『남사록』에서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의 호구는 남/녀로 기록하고 있다.

성안의 호구는 565호이다. 남자는 壯年과 老弱을 합쳐서 690여명 …… 여자는 壯年과 老弱을 합쳐

城中戶口 五百六十五 男壯老弱 …… 女壯老弱³⁴⁾

이렇게 김상헌은 인구는 남/녀로 기록하고 있어 성을 지키는 부녀자를 칭하는 제주어 여정을 특별하게 여겼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상헌이 본 1601년의 제주도의 여정은 유사시 군사적 역할을 하는 여성을 일컫는 제주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적에서 확인한 바로는 여정은 호적에 등재된 전체 여자 인구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정이 조선시대 내내 제주도의 여자 군사를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다(女多) 비율

제주도에만 여정이 남정에 비해 훨씬 많았던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제주도는 여다(女多)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어 여정이 많다는 것을 당연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제주도에는 여자 인구가 더 많기는 했던 것으로 옛 문헌들은 기록하고 있다. 여자가 많은 현상의 원인은 “제주의 남정들은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1년에 백여 명이 넘는다.”³⁵⁾고 하고 있기도 하다.

김상헌이 기록한 1601년의 제주도의 인구는 다음의 표 2과 같다.³⁶⁾ ‘제주도 인구’라고 표현하나 물론 당시 제주도의 전체 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³⁷⁾ 조선시대 호적에 등재되는 호구 파악이 원래 전

34) 김상헌 저, 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9, 104쪽.

35) 김상헌 저, 홍기표 역, 앞의 책, 183쪽.

36) 이증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51쪽.

체 인구를 등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상헌이나 이중이 파악한 제주도 인구는 호적에 등재된 인구 즉 역의 부담을 매기기 위한 마을별 할당 인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본고의 여자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를 다 파악한 조사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표 2의 여다(女多)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몇 명이나 더 많은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율은 각각의 항목이 총인구의 몇 %에 해당하느냐를 계산한 결과이다. 비율은 반올림한 수치이다.

(표 2) 1601년 제주도의 인구(단위: 명)

지역	총인구	남		여		여다(女多)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제주성	1,790	690	39%	1,100	61%	410	23%
제주목	1,730여	7,300	42%	10,000여	58%	2,700	16%
정의현	2,470	990	40%	1,480	60%	490	20%
대정현	1,430	550	38%	880	62%	330	23%
합계	21,200	8,840	42%	12,360여	58%	3,520	17%

출처: 김상헌, 『남사록』

1601년 김상헌의 기록만으로 제주도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 인구보다 평균 17% 더 많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3,520명이 더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1601년은 앞서 살핀 당시 제주도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고 봐야 하는 숫자이다. 제주성과 대정현은

37)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상 '호구' 기록의 검토」,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98~99쪽, 조선시대 호적 작성의 원칙은 “一漏戶, 一漏口도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호구파악”이었으나, “호적에서 파악되고 있는 인구의 통계는 실제의 30~40퍼센트에 불과”하며, “양반 명문가문의 경우에도 당시 실재하였던 인물의 10~20퍼센트가 호적에서 漏籍 되어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있기도 하다. 한금순,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제주도 『하원리 호적중초』를 분석해 보아도 마을의 모든 인구를 등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호적작성에서 漏戶와 漏口가 빈번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이 연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적상의 통계는 해당 연도의 총인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여자가 23%가 더 많다.

이중의 『남사일록』에는 1679년 제주도 인구 기록이 있다.

지금은 女丁이 남자보다 몇 갑절은 되지 않는다. 本牧의 男丁이 11,540여 명, 女丁은 14,790여 명이고³⁸⁾

今則女丁不得倍蓰於男 本牧男丁一萬一千五百四十餘³⁹⁾

1679년의 제주도 인구는 표 3과 같다.

〈표 3〉 1679년 제주도 인구(단위: 명)

지역	총인구	남정		여정		여다(女多)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제주목	26,330여	11,540여	44%	14,790여	56%	3,250여	12%
정의현	5,758	2,402	42%	3,356	58%	954	17%
대정현	2,910	1,204	41%	1,706	59%	502	17%
합계	34,998여	15,146여	43%	19,852여	57%	4,706여	13%

출처: 이중, 『남사일록』

1679년 제주도 인구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4,706여명 약 13%정도 더 많다. 1601년의 제주도 인구 여다(女多) 비율 17%는 1679년이 되면 13%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다음의 표 4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1601년과 1679년 제주도의 여다(女多) 비율(단위: 명)

연도	총인구	남		여		여다(女多)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1601년	21,200	8,840	42%	12,360여	58%	3,520	17%
1679년	34,998여	15,146여	43%	19,852여	57%	4,706여	13%

출처: 김상현, 『남사록』, 이중, 『남사일록』

1601년의 남녀는 42:58의 비율로 남자에 비해 여자는 17% 정도 더

38) 이중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51쪽.

39) 이중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영인본 61쪽.

많다. 1679년의 남녀는 43:57의 비율로 남자에 비해 여자는 13% 정도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점차 왜란으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나 남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별로 더 상세히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1601년과 1679년 사이의 제주도 3읍의 여다(女多) 비율

(단위: 명)

지역	연도	총인구		남		여		여다(女多)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제주목	1601년	17,300	7,300	42%	10,000여	58%	2,700	16%	
	1679년	26,330	11,540	44%	14,790	56%	3,250	12%	
정의현	1601년	2,470	990	40%	1,480	60%	490	20%	
	1679년	5,758	2,402	42%	3,356	58%	954	17%	
대정현	1601년	1,430	550	38%	880	62%	330	23%	
	1679년	2,910	1,204	41%	1,706	59%	502	17%	

출처: 김상헌, 『남사록』, 이증, 『남사일록』

표 5를 보면 80여년 후에는 여성인구가 더 많았던 현상이 점점 그 폭이 줄어들고 있음이 보인다. 제주목의 경우 1601년에는 남녀 비율이 42:58로 여자가 16% 많았는데 1679년에는 44:56의 남녀 비율을 나타내며 여자가 12% 더 많아 그 사이에 4%정도 남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정의현은 1601년 40:60으로 20% 더 많았던 여자가 1679년에 42:58로 17%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대정현의 경우는 1601년에 38:62의 비율로 여성이 23% 더 많았던 것이, 1679년 41:59의 비율로 17%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이 모두 1601년보다 4% 3% 6%정도 남자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모두 1601년보다 1679년에는 여다(女多) 현상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증은 1679년 “지금엔 여정이 남자보다 몇 갑절은 되지 않는다.”⁴⁰⁾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수치로 확인이 된다.

이로써 1601년 김상헌이 제주를 방문하였을 당시는 왜란의 영향으로

40) 이증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1쪽.

특히 남정의 숫자가 줄어든 시기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여정이 더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쟁시기가 아닌 시대의 남녀 인구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와 비교해보려고 한다. 제주도 인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원리 호적증초』에서 1810년에서 1861년까지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았다. 물론 해당 식년 호적의 인구 상황은 단순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해에 역병이나 수해, 전쟁 등의 상황으로 인구에 변동이 생기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수치만으로 단순히 비교해보려 한다.

〈표 6〉 1810년~1861년까지 하원리 남녀 인구 비율(단위: 명)

연도	도인구	남정	비율	여정	비율	여다(女多)	비율
1810년	228	97	43%	131	57%	34	15%
1813년	273	129	47%	144	53%	15	5%
1816년	288	133	46%	155	54%	22	8%
1819년	302	143	47%	159	53%	16	5%
1822년	315	151	48%	164	52%	13	4%
1825년	337	162	48%	175	52%	13	4%
1828년	343	159	46%	184	54%	25	7%
1837년	430	195	45%	235	55%	40	9%
1840년	389	180	46%	209	54%	29	7%
1843년	387	180	47%	207	53%	27	7%
1846년	421	198	47%	223	53%	25	6%
1849년	427	203	48%	224	52%	21	5%
1852년	425	192	45%	233	55%	41	10%
1855년	434	204	47%	230	53%	26	6%
1858년	458	213	47%	245	53%	32	7%
1861년	469	215	46%	254	54%	39	8%

출처: 『하원리 호적증초』

1810년 이후로는 여다(女多) 현상이 대체적으로 10% 밑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호적에 등재된 여자가 많은 현상은 제주도만의 특징인지도 살펴보고 싶었다. 다른 지역 호적에서도 남녀의 인구 비율을 찾아보았다.

『하원리 호적증초』와 마찬가지로 수치만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비교해 보려고 한다.

『단성 호적』과 『대구부 호적』에서 조사하였다. 1601년 근처의 호적이 없어서 왜란의 피해로부터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되는 80여년 후의 호적이지만 이를 분석해 보았다.

『단성 호적』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50:50 비율로 나타났다. 실제 수는 여자가 47명이 많다.

〈표 7〉 『단성 호적』(1678년)의 남녀 비율(단위: 명)

총인구	남				여				여다(女多)
	총	장남(壯男)	노	약	총	장녀(壯女)	노	약	
8,421	4,234	3,186	220	828	4,187	3,122	216	849	47
비율	50%	75%	5%	20%	50%	75%	5%	20%	1%

출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호적 DB

다음은 『대구부 호적』이다.

〈표 8〉 『대구부 호적』의 남녀 비율(단위: 명)

연번	호적	연도	면명	총인구	남		여		여다(女多)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1	대구부I	1681년	달서	902	363	40%	539	60%	176	20%
	대구부II	1690년		620	286	46%	334	54%	48	8%
	대구부II	1708년		742	285	38%	457	62%	172	23%
2	대구부I	1684년	동상	2012	984	49%	1028	51%	44	2%
	대구부I	1690년		2436	1173	48%	1263	52%	90	4%
	대구부I	1696년		2566	1248	49%	1318	51%	70	3%
3	대구부I	1684년	동중	1318	618	47%	700	53%	82	6%
	대구부I	1690년		1454	684	47%	770	53%	86	6%
	대구부I	1696년		1381	602	44%	779	56%	177	13%
	대구부I	1705년		1516	685	45%	831	55%	146	10%
4	대구부I	1684년	동하	1175	597	51%	578	49%	-19	-2%
	대구부I	1690년		1316	620	47%	696	53%	76	6%
	대구부I	1696년		1268	562	44%	706	56%	144	11%

5	대구부I	1681년	서상	2019	1011	50%	1008	50%	-3	0%
	대구부I	1684년		2027	1013	50%	1014	50%	1	0%
	대구부I	1708년		4525	2116	47%	2409	53%	293	6%
6	대구부II	1681년	서중	1506	666	44%	840	56%	174	12%
	대구부II	1684년		1416	672	47%	744	53%	72	5%
	대구부II	1708년		1525	634	42%	891	58%	257	17%
7	대구부I	1681년	수남	2165	1029	48%	1136	52%	107	5%
8	대구부II	1681년	수서	1349	624	46%	725	54%	101	7%
	대구부I	1708년		1894	873	46%	1021	54%	148	8%
9	대구부II	1687년	월배	1148	474	41%	674	59%	200	17%
	대구부II	1690년		1342	555	41%	787	59%	232	17%
	대구부II	1705년		1441	520	36%	921	64%	401	28%
	대구부II	1708년		1466	521	36%	945	64%	424	29%
10	대구부II	1687년	조암	775	321	41%	454	59%	133	17%
	대구부II	1690년		786	342	44%	444	56%	102	13%
11	대구부II	1681년	하동	1089	537	49%	552	51%	15	1%
	대구부II	1684년		1092	528	48%	564	52%	36	3%
	대구부II	1690년		1136	547	48%	589	52%	42	4%
	대구부II	1705년		1307	528	40%	779	60%	251	19%

출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호적DB

면별로 남녀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대구부 호적』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자가 더 많이 등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자가 적은 지역은 서상면(표 8의 5항)의 경우가 유일한데, 여자가 남자보다 3명 적은 경우가 보였다. 바로 3년 뒤에는 여자가 1명 더 많았으나 이십여 년 후에는 293명의 여자가 더 등재된다. 동하면(표 8의 4항)의 경우는 남자가 19명이나 더 많이 등재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년 뒤에는 76명 또 6년 뒤에는 144명의 여자가 더 많이 등재된다. 남녀의 비율이 식년을 달리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동상면(표 8의 2항) 같은 경우(2% 4% 3%)도 있고, 너무 격심하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차이를 보이는 달서면(표 8의 1항)(20% 8% 23%)과 하동면(표 8의 11항)(1% 3% 4% 19%), 월배면(표 8의 9항)(17% 17% 28% 29%) 같은 경우도 나왔다. 남녀의 비율이 거의 대등한 수치를 보이는 곳도 있고 최고 29% 여정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그 수치가 크던 적던 여정이 남정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등재되는 모습이다. 더 많이 등재되는 비율은 1% 정도 더 많은 비율에서부터 29%나 더 많이 여자가 등재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호적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다(女多) 현상이 그 격차는 물론 좀 다르지만 제주도만의 특별한 현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샘플을 분석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 1601년 제주도의 부역 대상자 장(壯)의 남녀 비율

김상헌이 제주도에 안무어사로 파견되면서 부여받은 임무 중에는 제주도 3읍의 호구의 수를 파악하는 임무도 있었다.⁴¹⁾

김상헌이 파악한 제주도의 호구(戶口)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1601년 제주도의 호구

지역	호	남	여
제주성	565호	690여명	1,100여 명
제주목	2,890호	7,300여명	10,000여 명
정의현	383호	990명	1,480명
대정현	307호	550명	880명

출처: 김상헌, 『남사록』

여기서 제주성의 경우를 주목해 보자.

성안의 호구는 565호이다. [남자는 壯年과 老弱을 합쳐서 690여 명, 여자는 장년과 노약을 합쳐서 1,100여 명]. 제주목에는 4면이 속해 있는데 2,890호이다.[남자는 장년과 노약을 합쳐 7,300여 명, 여자는 장년과 노약을 합쳐 1만여 명].⁴²⁾

김상헌은 호구를 파악하면서는 제주성의 남자가 장노약(壯老弱)을 합쳐서 690여명 여자가 장노약(壯老弱)을 합쳐서 1,100여명이라고 하였다.

41) 김상헌 저, 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9, 14쪽.

42) 김상헌 저, 홍기표 역, 앞의 책, 104쪽.

김상헌이 “本州城中 男丁五百 女丁八百(제주 성안의 남정은 500이고 여정은 800이다.)”이라고 기록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김상헌은 역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정(丁)으로 파악하여 남정과 여정으로 기록하고 전체 인구는 남 녀 장노약(壯老弱)으로 구분해서 기록하였다고 봐야 함을 알 수 있다. 정(丁)의 정의 “각종의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던 양인(良人) 남자의 통칭”⁴³⁾대로, 남정은 국역을 부담하는 남자이고, 김상헌은 제주성안의 남자 노인 장년 어린이를 합친 690여 명 중 500명을 국역 대상자인 남정으로, 여자 노인 장년 어린이를 합친 1,100여 명 중 800명을 여정으로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장정(壯丁)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

김상헌의 기록으로 1601년 인구 대비 장정의 비율을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제주성의 남자 중 역의 의무를 지는 남정은 72%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 중 여정의 비율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1601년 인구대비 장정 비율

구분	남	남정	비율	여정	여정	비율
인구	690명	500명	72%	1,100여 명	800명	73%

출처: 김상헌의 『남사록』

또한 김상헌의 기록 중 남정 500명과 여정 800명이라는 표현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정이 남정보다 300명이 더 많으며 남정의 60%나 더 많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단순히 남정과 여정의 숫자만 비교하면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월등히 많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인구 대비 남정과 여정의 비율을 계산해보니 남자는 총 690여 명 중에 500명의 남정이 여자는 1,100여 명 중에 800명의 여정이 동원되어, 남정 500명은 전체 남자의 72%, 여정 800명은 전체 여자의 73%이다. 즉 인구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남녀 공히 비슷한 비율로 동원되었음이 확인된다.

43)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그렇다면 여정이 남성보다 300명이 더 동원되었으나 전체 인구와 대비시켜 보면 남자인구 자체가 줄어든 시대적 특징으로 인해 수치가 줄어든 것이지 여자들만 더 많이 여정으로 동원되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 다른 시기에는 장정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살펴 보겠다. 전체 인구의 몇 %가 역의 의무를 지는 장(壯)에 해당되는지를 호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같은 시기의 호적이 있으면 정확하겠지만 비교적 가까운 연대의 호적을 통해서라도 그 비율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11은 1601년과 가장 가까운 1678년 『단성 호적』이다.

〈표 11〉 『단성 호적』(1678년) 장정 비율(단위: 명)

총인구	남				여			
	총	장남 (壯男)	노	약	총	壯女 (장녀)	노	약
8,421	4,234	3,186	220	828	4,187	3,122	216	849
비율	50%	75%	5%	20%	50%	75%	5%	20%

출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호적 DB

『단성 호적』의 경우 남자 중 장남(壯男)과 여자 중 장녀(壯女)의 비율이 공히 75%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의 역 부담 대상자 비율이 같다.

『대구부 호적』 1681년의 경우는 6개 면의 장정의 비율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대구부 호적』 장정 비율(단위: 명)

	연도	마을	인구	남	장(壯)	비율	여	장(壯)	비율
대구부1	1681년	수남	2,165	1,029	720	70%	1,136	705	62%
대구부1		달서	902	363	232	64%	539	310	58%
대구부1		서상	2,019	1,011	696	69%	1,008	663	66%
대구부2		서중	1,506	666	537	81%	840	672	80%
대구부2		하동	1,089	537	345	64%	552	350	63%
대구부2		수서	1,349	624	426	68%	725	494	68%
합계				4,230	2,956	70%	4,800	3,194	67%

출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호적 DB

남자 중 장정과 여자 중 장정의 비율은 마을별로 70%:62%, 64%:58%, 69%:66%, 81%:80%, 64%:63%, 68%:68%로 나타난다. 남과 여의 차이가 많을 때는 8%에서 6%, 3%, 1% 혹은 동일 비율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1681년 『대구부 호적』에서는 남자 중 장정은 평균 70%, 여자 중 장정은 평균 67% 정도의 비율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호적에서 인구에 미친 영향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적은 수의 샘플을 살펴보긴 했으나 다른 지역 호적에서 살핀 바로도 대체적으로 인구의 평균 70% 내외 정도가 장(壯)에 해당하고 있음이 보였다. 제주도의 경우 1601년 약 73% 내외가 장(壯)이어서 비율만으로 보면 특별히 다른 지역과 격차가 큰 것은 아님을 살필 수 있었다.

김상현의 기록에 나오는 제주성의 인구 비율과 장정의 비율을 대비시켜 보았더니 다음의 표 1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13〉 1601년 제주성의 인구 비율과 장정의 비율(단위: 명)

지역	총인구	남자	비율	여자	비율	여다(女多)	비율
제주성	1,790	690	39%	1,100	61%	410	23%
지역	총장정	남정	비율	여정	비율	여다(女多)	비율
제주성	1,300	500	38%	800	62%	300	23%

출처: 김상현, 『남사록』

1601년 제주성의 총인구는 1,790명이고 여자는 남자보다 410명 23%가 더 많다. 제주성의 장정은 모두 1,300명인데 여정이 300명 23%가 더 많아 인구 비율과 장정의 비율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표는 총인구 대비로 여정의 동원을 살폈을 때 여정이 더 많이 동원되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총인구의 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원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⁴⁴⁾

44) 이 표는 또한 조선시대 호적 등재 원칙이 전체 인구의 등재가 아니라 필요한 부역의 양만큼 등재시킨다는 원칙을 적용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도 필요한 비율만큼의 장정의 수를 채워 넣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헌 기록의 남정 500명과 여정 800명이라는 수치의 단순 비교만으로 제주도 여자에게만 훨씬 더 많은 부담이 지워졌던 것으로 보는 것은 그리 바른 인식은 아님이 드러난다. 인구대비 역 부담 숫자를 계산한 결과는 남녀 같은 비율임을 확인하였다.

4. 여정의 직역

사실 호적상에서 남정은 직역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며 여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정을 여성의 군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행여 여정이 직역으로 기재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여성들에게도 군역이 부과되고 있는지를 호적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호적에는 직역을 기재하여 담당할 부역을 표시해 놓고 있다. 『대구부 호적』과 『하원리 호적중초』를 살펴보니, 군역의 용어로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제주도의 군역에 관한 기록으로는 『제주속오군적부』(1685), 『대정군군병도안』(1870) 등이 있다. 여기에는 군역 대상자들의 이름이 드러난다. 『대정군군병도안』(1870)에는 1,900명의 군사가 기재되어 있다. 1,900명의 연령은 16세에서 60세 사이이다.⁴⁵⁾ 바로 호적에서 장(壯)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성별을 표시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행여 여성임을 표현하는 용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노(奴)와 비(婢)는 남과 여를 구분할 수 있는 용어인데 노(奴)는 등재되어 있으나 비(婢)로 등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여정을 군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입장은 ‘여정이 성정군에 투입되어 살밭이 터(塚口)에 배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정군군병도안』(1870년)에서 성정군의 배치를 살펴보았다.⁴⁶⁾ 성정군은 성을 지키는 군사이다. 성정군은 성장과 타장 치총 각기수 서기 고수 취수 등의 군사로 배치된다.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으로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다

45) 임승희, 「조선 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 제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42쪽.

46) 임승희, 앞의 논문, 44쪽.

록 하는 장치를 여장(女牆)이라고 하며, 이 여장의 한 부분을 타(堞)라 하고 여장의 타와 타 사이의 구멍을 타구(堞口)라고 한다. 이 구멍을 통해 성 위에서 아래의 적을 공격한다.⁴⁷⁾ 물론 반대로 적은 이 타구를 통해 성 위를 공격하게 된다. 대정군에는 동서남북 네 개의 문에 타가 모두 101개였다. 각 타에 거의 균일하게 2명이 배치되었다. 타구를 지키는 270명의 명단을 비롯 대정군의 성정군 337명의 명단 중에 여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찾을 수 없었다. 만일 여정이 제주도만의 군역 대상자로서 일정하게 군역으로 부과되는 성정군 중 여성 군인을 칭하는 용어였다면 이 명단에 기록됨이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다면 김상헌 기록의 여성들의 군사 활동은 사변이 났을 경우와 같이 유사시에 필요에 따라 동원되는 요역으로서의 여성 군사였다고 보는 쪽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본고는 여정은 조선시대 제주도 여성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군역이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여정은 남정보다 훨씬 많이 동원된 제주도의 여성 군인으로 성정군으로 투입되어 남성과 동등하게 군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여정은 조선시대 여성의 군역을 의미하는 직역의 용어가 아니며, 김상헌의 제주도 방문 시기인 1601년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한 군사의 감소로 인해 유사시 한시적으로 동원되는 요역으로서의 여자 군사 역할을 하던 여성을 일컫는 제주도어 여정을 김상헌이 특별하게 여겨 기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상헌이 방문하였던 1601년 제주도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1600년 경 제주도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영향으로 ‘인민의 태반이 사망하여

47) 다음 사전(<http://dic.daum.net>).

궐호가 3분의 2나 되어 장정이 없어 관방을 방어할 방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상헌이 다녀간 직후인 1603년까지도 '전란 이후 주민들이 거의 다 사망하고 인물이 늙고 병든 것이 근래에 더욱 심하며, 군졸은 수백 명이 못되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조정에서는 제주도에 관례적으로 파견해주던 원병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야 왜 여정이 남정 보다 많은 숫자로 성을 방위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다음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해보았다. (1)여정은 제주도에 서만 쓰이는 제주도어였는가 (2)여정이 군역을 칭하는 용어인가 (3)제주도에만 여정이 남정보다 숫자적으로 많았는가.

우선, 조선시대 여정이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 용어인가를 살피기 위해 호적을 활용하였다. 『전라도 해남현 호적대장』에서는 1639년에 전체 여자 인구를 칭하는 용어로 여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단성 호적』과 『대구부 호적』에서는 남/녀라는 용어가 1696년 이후에 남정/여정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남정/여정은 호적에 등재된 전체 남자 인구나 전체 여자 인구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1601년의 여정이라는 용어는 김상헌의 기록처럼 제주어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또한 김상헌도 남/녀와 남정/여정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음도 살폈다. 그러므로 여정을 조선시대 내내 제주도 여성의 군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기엔 곤란하다.

둘째, 제주도에만 여정이 남정보다 숫자적으로 많았는가를 살폈다. 『대구부 호적』에서도 여정이 더 많이 등재되는 현상이 보였다. 딱히 제주도에만 여정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김상헌의 기록상의 “남정 500 여정 800”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전체 인구 대비 남정/여정의 비율을 주목하였다. 총인구 대비 남정과 여정의 비율을 계산해 보았더니 72%와 73%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비율과 장정의 비율을 비교해봤더니 남녀인구는 39:61, 남정 여정의 수는 38:62로 역시 해당 인구 중 남정 여정의 동원 비율이 거의 같은 수치였다. 이는 제주도 여자들에게만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많은 역의 부담이 있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증빙이었다. 왜란의 영향으로 남자 인구가 워낙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숫자로는 300명의 여정이 더 많았으나 전체

인구 대비로는 남녀 공히 비슷한 비율로 남정 여정으로 동원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여정은 여성의 군역을 의미하는 직역의 용어가 아니었다. 호적 또는 기타 제주도 군역 자료에서도 여성의 군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찾을 수 없었다. 김상헌 기록의 여정은 요역 대상자로서 유사시에 성정군으로 동원되어 군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정은 김상헌의 제주 방문 시기인 1601년경에는 성을 방위하는데 동원되었던 제주 여성들의 요역을 일컫는 제주어였다고 보인다. 김상헌은 7년의 왜란 직후인 1601년 제주를 방문하였고 군사가 절대적으로 적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정군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을 제주도어로 여정이라 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김상헌의 기록을 다시 부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01년 김상헌이 제주를 방문하였을 당시, 제주성에는 남정이 500명이고 여정이 800명이었다. 여정이라는 것은 제주어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피해로 제주도에 관례로 내려 보내던 원병도 여의치 않아 남자만으로 군사를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므로 대개 남정이 매우 귀하여 만일 사변을 만나게 되면 민가의 건강한 부녀자를 골라 타구(塙口)에 파견하여 세웠다. 이를 제주도로 여정이라 칭한다. 삼읍이 모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정은 조선시대 ‘제주도만’의 특별한 ‘군역’으로서 ‘여군’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다만 유사시에 요역으로 동원되었던 여성들을 일컫는 용어였고, 제주도 여성들에게만 더 많이 덧씌워진 부당한 군역은 결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다른 지방의 유사시 여성 군인 역할 사례를 연구할 수 있으면 차후 비교하여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김상헌 저, 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9.
이증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선조실록』 『명종실록』 『숙종실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주하원리 호적증초』 1, 2(영인본), 1992.

2. 저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사』 I, 2009.

3. 논문

- 김상옥, 「조선후기 제주지방 군사제도」,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김일우,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임승희,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 제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임학성, 「현재 16.17세기 호적대장의 특징과 신발견 1666년도 ‘제주목병오식호적대장’ 단편」, 『고문서연구』 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호구’ 기록의 검토」,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한금순,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4. 기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서울대학교규장각(<http://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호적 DB(<http://daedong.skk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Research of “Yeo-Jeong” in Jeju

Han, Geum-Soon*

According to Kim Sang-Heon's report in 1601, “Yeo-Jeong” in Jeju indicated the females who were temporarily deployed for compulsory labor. There was the exceptional measure that the female labor in Jeju was utilized for some sorts of military service like protecting defensive walls. This measure resulted from drastic decline of male population after two wars against Japan since 1592. As Kim Sang-Heon reported, 500 males and 800 females were deployed for this emergency. This numerical figure was equal to the gender ratio in demographics of 1601.

In conclusion, “Yeo-jeong” was not compulsory enlistment of females for maintaining the standing army in Jeju. Furthermore, female deployment was not regularly implemented in Jeju during the Joseon Dynasty. After 1696, the term of “Yeo-jeong” signified females who were listed in the family register of whole regions.

* Key Words : Yeo-jeong, Kim Sang-Heon, the family register during the Joseon Dynasty, military service, temporarily deployed for compulsory labor

* Teacher, Namnyeong High School in Jeju

교신 : 한금순 024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3길 18-6
(E-mail : sanhana@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08. 29.

심사완료일 2016. 10. 04.

게재확정일 2016. 10. 07.